

‘코로나19 민심’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51.0%

긍정 44.7%로 긍정·부정 평가 오차범위 밖...20~40대 지지층 외면

중도·진보층서도 모두 하락세...자영업자·무직자 ‘긍정’ 소폭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한달여 만에 50%를 넘어섰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가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이달 25~2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주간동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51.0%로 전주(49.1%) 대비 1.9%포인트(p) 상승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44.7%로 전주(47.4%) 대비 2.7%p 하락했다. 모름·무응답은

전주 대비 0.8%p 오른 4.3%였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격차는 6.3%p로 전주 1.7%p 대비 확대했다.

이번 결과는 3주 연속 오차범위 내 혼조세를 마감하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한 정부 대처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차이는 지난해 11월 1주차 조사(7.7%p) 이후 16주 만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강

원과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앞 주 조사대비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일간조사 기준 부정평가는 지난 10일 52.4%를 보인 이후 11조사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국정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전주(47.6%) 대비 6.4%p 내린 41.2%를, 경기·인천은 3.3%p 내린 48.3%, 대구·경북은 4.9%p 내린 25.5%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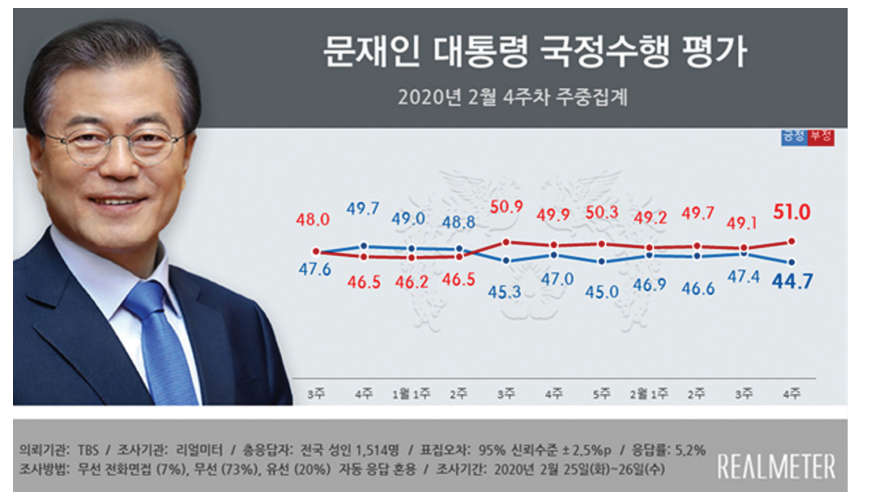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지지 연령대인 20~40대에서 긍정 평가가 모두 하락했다. 30대는 가장 큰 하락폭인 5.9%p를 기록해 긍정평가가 50% 아래인

47.1%를 기록했다. 이어 20대는 5.8%p 내린 41.3%, 50대는 3.5%p 내린 43.9%, 40대는 3.0%p 내린 56.6%만이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3.1%p 내린 18.2%의 긍정 평가가 나왔다. 중도층에서는 3.0%p 내린 38.6%, 진보층에는 2.7%p 내린 74.6%를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14.2%p 내린 34.7% △사무직이 3.9%p 내린 55.6% △노동직이 2.8%p 내린 45.1% △가정주부가 1.4%p 내린 38.2%를 기록했다. 자영업과 무직은 각 1.4%p, 4.4%p 오른 41.6%, 39.5%를 기록해 대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25일~26일 18세 이상 유권자 2만89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14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응답률 제외 목적 표집률 확정 후 미수신 조사



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7%), 무선(73%)·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의사봉 두드리는 김정화민생당 공동대표.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당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제사회, 코로나19 대응 韓능력 믿어...美와 긴밀 공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럽 일정 마치고 귀국...“시진핑 주석 상반기 방한, 변함없이 추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한 미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는 가장 긴밀한 공조 파트너”라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방문 일정을 마친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확진자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지만 한국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WHO(세계보건기구)의 평가”이며 “각국이 우리나라 상황을 지켜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지난 22일(현지시간) 2단계(강화된 주의)로 올린 지 나흘만인 26일에 3단계(여행 재고)로 다시 올렸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탈리아 등 다른 코로나 19 발병 국가부터의 여행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때에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각국의 한국발

입국제한이나 절차 강화에 외교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서 많이 걱정하시고 계시죠. 알고 있다”며 “어떤 정부들은 정말 사전 통보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해서 강력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각국이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당당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관에서 적극 교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한국 방문지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 및 지역은 21곳, 입국을 제한한 국가 및 지역도 21곳에 달한다. 이 수치는 매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통화에 대해서 “중국 일부 지방정부의 조치는 과도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면서 “국경 통제는 중앙정부의 일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 특별히 당부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어제는 왕이 부장



과 거기까지 얘기가 안됐다”면서 “양국이 상반기 중에 서로 합의한 일정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서로의 이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전일 통화에서 최근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 등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왕 위원은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한중간 우호를 지속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입당...“안철수계 의원들 결단할 시기”

입당 미루는 비례 의원들에 거취 표명 요구



이 됐다. 권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의 오만을 견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기득권처럼 지지층만 보지 않고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그래왔듯이 중도 실용 정치의 길을 계속 가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저지해야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대안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에게 그들을 위한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계) 의원들이 정치적 결단을 할 시기”라며 “지금까지 (다른) 의원들의 정치적 결단을 기다리며 입당을 미뤘던 것”이라며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결단을 미루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거취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통합당 입당설 등이 흘러나오는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